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23. 9.

울주관광문화연구회

I. 연구 추진 개요

□ 의원연구단체 설립

- 연구단체명: 울주관광문화연구회
- 설립일: 2022.9.27.(등록신청), 2022.10.6.(연구단체심의 가결)
- 연구목적: 울주군의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의 창달 등과 관련한 제반 연구의 실시
- 회원구성

구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회장	김상용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회원	정우식	경제건설위원회
회원	이상걸	경제건설위원회
회원	이상우	경제건설위원회

□ 연구용역 발주

- 용역명: 울주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발주사: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 연구기간: 2022. 10. 7. ~ 2022. 12. 20.
- 금액: 19,800,000원(의원정책개발비 205-09)

II. 용역 관련 주요 경과 및 결과

1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2022. 10. 21.
- 중간보고회: 2022. 12. 5.
 - 주요내용
 - 관광자원 현황: 지역 여건, 관광객 통계, 개발환경 변화 등
 - 관광실태 조사: 관광객 설문조사, 지역상인회 심층면접조사
 -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체류형 관광 콘텐츠, 케이블카 운영
 -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관광 브랜드 재정립 등

2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회: 2022. 12. 20.
 - 주요내용
 - 관광환경 분석: 국내관광 트렌드, 관광자원, 예산 및 자치법규
 - 실태조사 분석: 관광객 설문조사, 지역상권 의견조사
 - 사례 분석: 체류형 관광, 축제 및 이벤트, 케이블카 도입, 연수원 설립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방향,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조례의 제·개정

3 용역 결과

- 울주군 관광산업이 군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정책 및 지원을 위한 전략의 수립이 목적임

-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수요가 점차 살아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원정책이 개별관광자원에 집중되고 있어, 기존 관광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과 연계 관점, 그리고 의회의 역할 강화 등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제시
 - 1) 전 산업을 아우르는 관광 정책
 - 2)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의회의 역할 강화
 - 3) 관광산업 추진 협의회(심의위원회) 구성
 - 4)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 5) 울산광역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 6) 대형 리조트 유치

- 관광은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으로 울주군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의 증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분석됨

- 이를 바탕으로 울주군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류형 관광'에 주목하고, 울주군 관광산업의 효율적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
 - 1) 대형 숙박시설 유치
 - 2) 기존 관광자원 연계 및 활용
 - 3) 체험 관광 콘텐츠 개발
 - 4)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또한 관광 관련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과 근거 조례가 없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 울주군이 관광 정책과 계획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울주는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잠재력을 지닌 곳이므로, 다양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숨겨진 울주 관광자원을 재조명하는 통합적 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Ⅲ.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성과

①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中(2022.11.16.)

위원장 김상용 의원

"...(생략)...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늘 체류형 관광이라 그러는데 울주군이 그런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 있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단적인 예로 간절곶에 가면 정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먹고 자고 놀다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음식점도 횡집으로 주로 이루어져서 젊은 층이나 신세대들이 왔을 때는 먹을 음식들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말로만 체류형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체류형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고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만들어야 된다. 남들 하는 걸 계속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울주군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관광과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홍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악은 산악대로 해양은 해양대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울주군의 특성, 상징물 하나 선정해서 그것은 울주군이다. 이런 상징성을 하나 포함 시켜서 관광사업에 용역이나 이런 데, 준비하는 데 준비해 주시고 저도 용역하는 결과를 한번씩 보면 용역이 보여주기식 용역이다. 늘 그림만 좋게 용역을 나열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늘 돈만 주고 용역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용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②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 체류형 관광산업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집행부에 공유 (2023년 1월)
-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소 시설 개선 사업 공고 (2023년 4월, 관광과)
 - 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최대 1억원의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 범위: 객실 증축·개축, 소방·안전시설 정비, 욕실 등 시설 개선, 건물 내외관 개선, 서비스 개선, 기타 시설 개선 등

③ 연구 결과에 따른 관광산업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 시기: 현재 검토 중으로 2023년 말 ~ 2024년 초 발의 예정
- 연구단체 회원 공동발의 예정
- 제·개정 대상 조례
 -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
 - 울주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나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성 있음
 -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 울주군이 관광단지 조성 및 민간투자 유치 등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맺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근거 조례가 없음
 - 원활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 기능이 없어, 이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
 -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알프스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없으므로, 조성에 따른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상생 지원계획이 필요
 - 알프스 주변지역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례가 필요함
 -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서생 해양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간절곶 서생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에 따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상생 지원계획이 필요
 - 간절곶 서생 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